

돼지 인공수정기구의 모든 것

동진상사

김상중 · 이원구 사장

돼지 인공수정기구를 중심으로 초음파 임신진단기, 축산사양 기자재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동진상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돼지 인공수정기구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인공수정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기구를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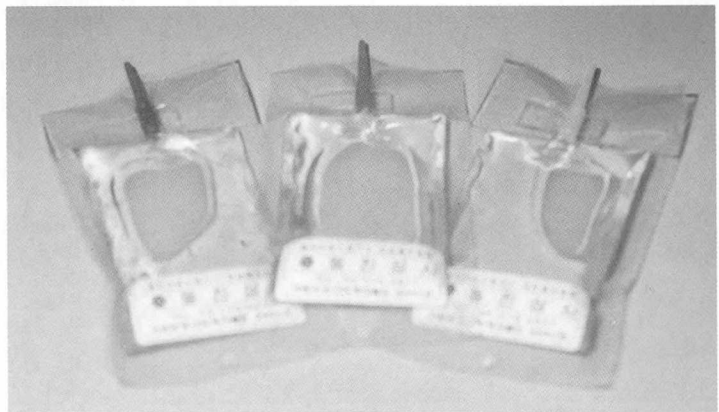
현재 동진상사와 비슷한 품목을 판매하는 중앙무역에서 근무하던 김상중 사장과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이원구 사장은 공동출자를 통해 돼지 인공수정기구를 중심으로 기존의 기자재를 국산화시켜 국내 판매를 확산시키고,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지난 95년 5월에 동진상사를 창립하였다.

이러한 창립 이유로 동진상사는 그간 많은 기자재들을 국산화시키는데 성공하였고, IMF이후 외국제품의 수입이 힘들어지면서 인공수정 기자재 업체중 국내 생산, 판매 1위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국내 최다인 12가지의 인공수정기구에 관한 모든 것을 생산해 내는 동진상사는 현재 취급품목 100여종에 25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제품개발과 국산화에 모든 힘을 쏟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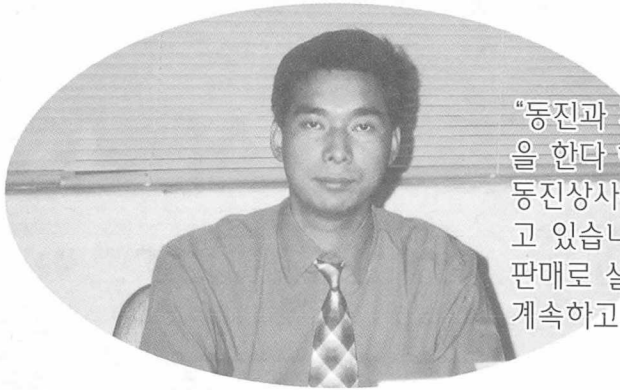
현 재 10여명의 관리직원과 미국에서 IMF이전에는 수입을 위주로, 지금은 수출의 전진기지로 상담과 A/S를 맡고 있는 2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동진상사는 좁은 국내 인공수정 시장외에도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진상사는 현재 국내 돼지 인공수정 기자재중 유일하게 특허를 신청한 동진팩이라는 새로운 국산화 제품을 지난 5월 출시하고, 이 제품이 국내 돼지 인공수정팩의 사용비율을 늘리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자부하면서 연간 70만개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진상사는 창립이후 국내최초 돼지 정액보관



▲동진팩은 250만원에 달하는 썰링기구가 필요없으며, 1회용 주입기, 영구형 주입기 등 모든 주입기에 사용이 가능한 잇점이 있으며, 국산화를 통해 가격(200원/개)을 낮추었다.

고 생산, 건조까지 가능한 멸균소독건조기 세계 최초 개발, 돼지 거세보정틀 100% 국산화 개발 등 많은 제품을 국산화하고 개발하였다. 그 예로 돼지 정액 보관고의 경우 고장이 났을 때 냉장고



“동진과 거래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내가 농장을 한다 해도 꼭 동진과 거래할 겁니다. 동진상사는 농가의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도 경영비를 줄이고, 동진도 판매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는 개발과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진상사 김상중 사장

전체를 운반하는 불편을 덜어 관리와 A/S가 용이하도록 냉장고 외부에 콘트롤 박스를 다는 등 차별화와 고급화, A/S합리화를 위한 세세한 편리와 수정과 아이디어가 곳곳에 숨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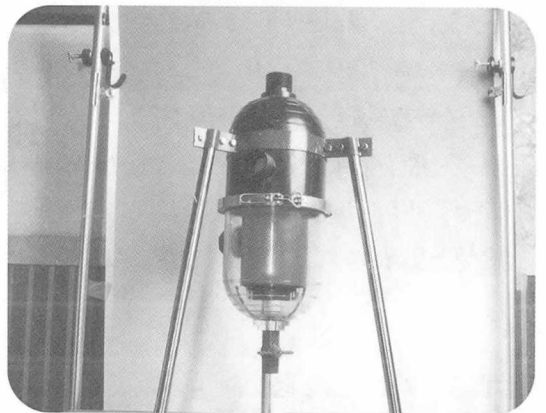
8년전 중앙무역에서 양돈 PART를 맡으면서 양돈과의 인연을 맺었다는 김상중 사장은 특히 정액 회석제의 경우 아주 민감한 만큼 균일화시켜 철저한 제품관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3년동안 계속해서 농장에 공급하고 있지만 아직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것이 바로 동진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동진상사는 기존의 제품 이외에도 7월중에 농장방역을 완벽히 소화해 낼 수 있는 20여종의 방역기구 셋트와 물탱크 이물질 여과기 등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동식 돈사, 물탱크 살균소독장치 등 기타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중에 있다고 한다.

모든 제품은 정밀기기를 이용하여 출고전에 항상 제품검사를 하며, 제주와 여주에 있는 지정 농장에서 먼저 사용실험 후 출고를 하고 있어, 안심하고 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장에서 제품의 값어치를 꼭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김상중 공동대표는 어려운 점을 묻는 필자의



▲농장의 니뿔 등에 모래 등 이물질이 들어가 많은 문제점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한 이물질 제거기. 22만원에 다음달(7월) 출시예정이다.

질문에 “사실 제품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나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수요가 많지 않은 국내 축산기자재 시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제품의 단가가 높아져 농가에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지 못하는 부분이 실로 아쉽습니다. 해외로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진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회사는 정부에서 벤처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축산업계의 경우는 지원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기자재의 고급화와 질 향상, 가격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라고

동진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회사는 정부에서 벤처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축산업계의 경우는 지원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기자재의 고급화와 질 향상, 가격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말하여 한편으로는 다른 업체의 경우 제품개발에 너무 소홀한 것 같으며, 직접 현장에 가서 무엇이 필요하고 불편한지를 아는 것이 제품의 개발

에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진은 제품의 판매 이외에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A/S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천안, 진주에 사무실을 두고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대구와 전주에도 조만간 만들 계획에 있다.

또한 동진인공수정 연수원(여주)을 운영하는 가 하면, 새로운 제도로 돼지 인공수정 연수회를 지난 5월에 만들어 6월초 현재 100여명의 회원이 확보된 상태이다. 자가 AI농장, AI센터등에서 한 명씩만을 회원으로 받고 있는 이 모임은 동진상사에서 많은 혜택을 부여할 것이며, 1,000명의 회원을 확보할 계획이라 한다.

2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동진상사는 아직까지도 판매의 30%에 달하는 부분은 국내에서 생산하기 힘든 첨단 계측장비들이라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제작가능한 모든 부분들은 최대한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신념에 찬 모습을 보였다.

34세(김상중 대표)와 36세(이원구 대표)의 젊은 두 사장은 언젠가는 축산기구의 전 품목을 동진에서 취급하고 싶다고 드넓은 포부를 밝히며, 판매한 제품은 농장에서 가격만큼의 값어치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제품의 확실한 사용요령과 A/S를 실시할 것을 다짐했다. 두 사람의 활기찬 모습과 바쁜일정은 동진상사가 국내 돼지 인공수정 기자재 시장을 이끌어 갈 재목임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취재 : 조진현〉 **養豚**



위/동진인공수정 연수원(여주)을 통해 실제로 인공수정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 11월 초부터 현재 13기, 6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95% 이상이 실습으로 진행되는 이 교육은 현역 시엔타 사장이 강사로 하루동안 계속되어진다.

아래/동진인공수정 연수원에서 실제로 거세를 해보고 있는 연수생들.